

2024-10-21 (2024-41호)

10월 21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강달러와 맞물린 외인 주식 역송금 경계..상단 저항 테스트

서울, 10월21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글로벌 달러 강세에 레벨을 크게 높인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도 달러 방향성과 변동성을 주목하면서 단기 고점 찾기에 나설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50-1380원이다.

미국의 견조한 경제에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빅컷' 기대가 사라진 이후 달러와 채권금리가 방향을 선회 하자 달러/원은 10월 들어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월 말 1300원을 위협하던 환율은 지난주 1370원대로 올라 지난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지수가 3주 연속 오르고 달러/원도 이와 동일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원화 약세 이유가 명확하지만, '빅피겨'인 1400원을 향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경계가 된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세가 진정되지 않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18일까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28거래일 연속 팔았고 그 규모는 12조원에 달한다.

강달러에 더해진 외인 주식 매도와 관련된 수급 압박은 원화에 있어 큰 부담이다. 이번 주 역시 시장참가자들은 외인 주식 역송금 지속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가 재부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자산시장의 전반적인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원화의 약세 되돌림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한편, 북한 특수부대의 러시아 파병 소식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여부도 경계해야할 재료다.

중국 정부의 강한 부양의지에 위안 약세 되돌림은 막히지만, 수시로 변동성을 키우는 위안에 대한 긴장감도 유지될 전망이다. 21일 중국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를 결정한다.

한편, 주중 발표되는 10월 S&P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지수와 미국 주요 기업 실적 결과 따라 뉴욕 증시를 비롯한 달러와 채권금리는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고점 대기매물보다 당국 경계감이 작동하는 양상 속 달러/원은 현재 상단 저항이 유효한 모습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외 전개 양상 따라 환율이 수시로 상승 시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 춘계회의에 참석한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발표한다.

▶ 주간 세계 이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재무장관들은 워싱턴에 모이고, 테슬라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한다.

○ 테슬라 실적

최근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테슬라(TSLA.O)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테슬라 주가는 이달 오랫동안 기다려온 로보택시 공개 이후 일부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세부사항이 부족하다고 말한 이후 큰 타격을 입었다. 올해 S&P500지수가 22.5% 상승한 데 비해 테슬라는 약 11%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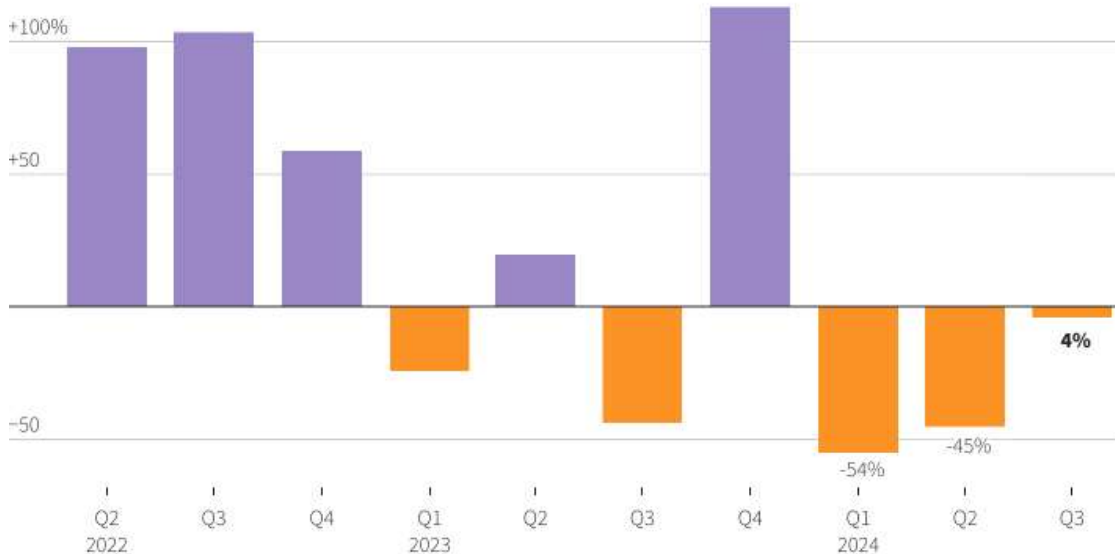
7월 말 예상보다 부진한 테슬라의 실적과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의 실망스러운 실적은 8월 초 미국 주식 매도세를 촉발시켰다.

고용지표 호조와 지난달 연방준비제도의 50bp 금리 인하 이후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에 대해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오는 23일 발표되는 테슬라 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술주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를 재점화할 수 있다.

Tesla earnings expected to fall for the third straight quarter

Year-over-year change in net income

LSEG median forecast



Note: Q2 2024 data is preliminary. The plotted forecast is the median of a poll of 17 analysts by the London Stock Exchange Group (LSEG).
Source: LSEG | REUTERS, Oct. 16, 2024

⊙ IMF · WB 연례회의와 브릭스 정상회의

금융 당국자들은 월요일부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그룹의 연례회의를 위해 워싱턴 D.C.에서 각국의 성장 둔화와 계속 증가하는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 정상회의를 개최해 서방과의 대치 상황에서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러시아는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의제에는 미국 달러 지배를 종식하는 것이 포함돼있다.

올해 가장 큰 정치적 리스크 이벤트인 미국 대선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새로운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PMI 지표

한 달 전 9월 기업활동 지표가 발표됐을 때 투자자들은 유로존의 급격한 위축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ECB 금리 인하 베팅을 늘렸다.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10월 PMI는 금리가 얼마나 더 떨어질지 가능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될 것이다. 다른 국가의 PMI 데이터도 같은 날 발표된다.

유로존 9월 구매관리자지수 최종치는 경기 위축과 확장을 구분하는 50을 밑돌았지만 당초 예상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ECB가 연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유로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Eurozone business activity lagged other regions in September

Composite Flash Purchasing Managers' Index (PMI) across major economies Expansion > 50 Contraction

Last 12 months	Oct. 2023	Nov.	Dec.	Jan. 2024	Feb.	Mar.	Apr.	May	June	July	Aug	Sep.
Australia	47	46	47	48	52	52	54	53	51	50	51.4	50
Eurozone	47	47	47	48	49	50	51	52	51	50	51.2	49
France	45	45	44	44	48	48	50	49	48	50	52.7	47
Germany	46	47	47	47	46	47	51	52	51	49	48.5	47
UK	49	50	52	53	53	53	54	53	52	53	53.4	53
US	51	51	51	52	51	52	51	54	55	55	54.1	54
Japan	50	50	50	51	50	52	53	52	50	53	53.0	53

Note: Purchasing Managers' Index (PMI) is an index compiled through the results of the monthly survey of purchasing managers in enterprises and shows whether market conditions are expanding, staying the same, or contracting.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Oct. 17, 2024 | By Vineet Sachdev

⊙ 中 정책과 증시

중국 증시는 중국의 빅뱅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거의 완벽한 지표였으며, 지난 두 달간의 차트를 보면 기대감이 얼마나 빨리 꺾였는지 알 수 있다.

지난 9월 말 팬데믹 이후 가장 크고 광범위한 부양책이 발표된 이후, 많은 기대를 모았던 정책 브리핑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세부 사항, 특히 재정 지출 규모에 대한 발표 없이 지나갔다.

지난 금요일 약속한 스왑 기구 제도 운영 개시가 주가 급등을 촉발했을 때 미세한 정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그러나 다음 달 초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전까지 추가 부양책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몇 주 동안 공백이 생긴다면 주식 랠리를 자극하는 데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 영국 차입 데이터

영국의 새 노동당 정부는 10월30일 첫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가운데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하는 정부의 차입 데이터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8월 공공부문 순부채는 경제 생산과 정부 차입금의 100%를 기록했으며, 이는 경제학자들 예측보다 30억 파운드가 많은 137억3000만 파운드였다. 9월 차입액은 10월22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영국이 공공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추측이 커지면서 채권시장은 리스 트러스트 전 총리의 혼란스러운 2022년 미니 예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국채를 매각하고 있다고 BNY는 전했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반도체 관련 기업 실적..시장 바로미터

뉴욕, 10월21일 (로이터) -

해외 반도체업계 선두주자 두 곳의 상반된 실적이 며칠 간 큰 변동성을 촉발한 가운데 앞으로 몇 주간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투자자들의 면밀한 관찰을 받게 될 것이다.

올해 이 산업은 인공지능(AI) 열기에 힘입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중심에 서 있었으며, 특히 AI의 대표주자인 엔비디아NVDA.O 주가는 급등했다.

밀러 타박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매트 말리는 "반도체 주식이 버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들이 하락한다면 시장 전반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는 올해 상반기 40% 이상 상승한 후 되밀렸다. 이 지수는 올해 약 25% 상승한 한편 S&P500지수.SPX는 22.5% 올랐다.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주식은 S&P500에서 11.5%의 비중을 차지한다. 시가총액 기준 최대 기업인 애플 AAPL.O에 근접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지수에서 6.8%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관련 섹터는 지난 한 주 동안 드라마틱한 한 주를 보냈다. 지난주 화요일 유럽 최대 기술기업인 ASMLASML.AS이 예상보다 낮은 내년 매출과 예약을 전망하자 반도체 주가는 하락했다. 하지만, 목요일에는 AI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첨단 칩을 생산하는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2330.TW가 분기 순이익

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54%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자 주가는 반등했다.

금주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XN.O와 장비회사 램리서치LRCX.O 등 실적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시노버스 트러스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다니엘 모건은 자동차 및 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제품은 반도체 산업에서 부진했던 해당 분야가 반등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MD(Advanced Micro Devices) 실적은 다음 달 말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앞서 AI 관련 수요에 대한 초기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AMD의 2025년 AI칩에 대한 예측이 견조하다면 "이 부문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메일리는 말했다. 이번 주는 미국 기업 실적 전반에 있어 바쁜 한 주로 테슬라 TSLA.O, 코카콜라 KO.N, IBM IBM.N 등 100개 이상의 S&P500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이벤트

10월21일 (월)

- ⊙ 관세청: 24년 10월 1일~10월 20일 수출입 현황
- ⊙ 통계청: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10:00)
- ⊙ 한국은행: 2024년 9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2:00)

10월22일 (화)

- ⊙ 한국은행: 2024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06:00)
- ⊙ KDI: KDI-브루킹스연구소, "새로운 글로벌 다이내믹스 탐색: 도전과 정책"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10:00)
-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2024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11:00)
- ⊙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22:00)

10월23일 (수)

- ⊙ 통계청: 2024년 8월 인구동향, 2024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12:00)
-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뉴욕 한국경제설명회 개최(11:00)
- ⊙ 기획재정부: 윈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범부처 수출금융 협의체(Fin-eX) 발족(16:00)
- ⊙ 기획재정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8차 회의 개최(17:00)
- ⊙ 한국은행: 2024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잠정)(06:00)
- ⊙ 한국은행: 2023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12:00)
-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12:00)

10월24일 (목)

- ⊙ 기획재정부: 제2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6:00)
- ⊙ 기획재정부: 24.10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00)
-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08:00)
- ⊙ 한국은행: 2024년 10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10월25일 (금)

-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11:00)
-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동향(12:00)

(박예나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0월21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10월21일	10:00	중국	대출우대금리 1Y	10월		3.35%
10월21일	10:00	중국	대출우대금리 5Y	10월		3.85%
10월23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0월18 일 주 간		230.2
10월23일	23: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10월	-12.5	-12.9
10월23일	23:00	미국	기존주택판매	9월	3.86M	3.86M
10월24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10월		49.7
10월24일	17: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잠정치	10월	45.3	45.0
10월24일	21:00	미국	건축허가건수 수정치	9월		
10월24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0월14 일 주 간	247k	241k
10월24일	21:30	미국	전미활동지수	9월		0.12
10월24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10월	47.5	47.3
10월24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10월	55.0	55.2
10월24일	23:00	미국	신축주택판매	9월	0.718M	0.716M

10월25일	08:30	일본	도쿄 CPI	10월		2.2%
10월25일	17:00	유로존	총유동성(M3) 증가율	9월	3.0%	2.9%
10월25일	17:00	유로존	가계대출	9월		0.6%
10월25일	21:30	미국	내구재주문	9월	-1.0%	0.0%
10월25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10월	69.3	68.9
10월27일	10:30	중국	산업이익 YTD	9월		0.5%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0월21일 (월)

- ⊙ IMF-세계은행 연차 총회 (26일까지)
- ⊙ 로리 로건 델러스 연방은행 총재, SIFMA서 연설 (오후 9시55분)
-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치페와폴스 상공회의소 타운홀 참석 (22일 오전 2시)
- ⊙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경제 및 통화정책 관련 연설 (22일 오전 6시5분)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2024 테크 라이브 참석 (22일 오전 7시40분)

10월22일 (화)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핀테크 관련 연설 (오후 11시)

10월23일 (수)

- ⊙ 미셸 보우만 연방준비제도 이사, 핀테크 관련 행사 연설 (오후 10시)
- ⊙ 캐나다 중앙은행 정책금리 및 통화정책 보고서 발표 (오후 10시45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유럽 경제 전망 관련 연설 (오후 11시)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커뮤니티 컬리지 영향 인식'에 관한 연설 (24일 오전 1시)
- ⊙ 연준 베이지북 (24일 오전 3시)

10월23일 (수)

- ⊙ 아다치 세이지 일본은행 정책위원 연설 및 기자회견

10월24일 (목)

- ⊙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관련 연설 (오후 10시45분)

(김지연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삼성, 미국 새 공장 위한 ASML의 반도체 장비 인도 연기

서울, 10월18일 (로이터) - 삼성전자 005930.KS가 텍사스 새 공장을 위한 ASML ASML.AS 반도체 제조 장비의 납품을 연기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3명의 관계자가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고객들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또한 테일러시에 있는 170억 달러 규모의 공장에 대해서도 다른 공급업체에 주문을 보류하고 있으며, 다른 고객들을 찾고 현장에 배치된 직원을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이 말했다.

장비 납품 지연은 삼성의 근원 사업인 메모리 칩을 넘어 대만의 TSMC(2330.TW)가 장악하고 있는 위탁 반도체 제조로 확장하려는 이재용 회장의 야망의 핵심인 테일러 프로젝트에 새로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의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이엔드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 있는 TSMC와 SK하이닉스(000660.KS)와 같은 경쟁사와 삼성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업체인 ASML은 화요일에 AI 이외의 시장에서의 약세와 팍 지연을 이유로 2025년 매출 전망을 낮췄다.

ASML은 팍을 연기한 고객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는 삼성이 일부 ASML 장비의 납품을 미뤘다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했다.

소식통 중 두 명은 삼성의 테일러 공장에 대한 배송이 지연된 것은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라고 불리는 ASML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올해 초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아직 기계가 배송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소식통은 삼성이 장비나 수정된 납품 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일부 ASML 장비의 공장 납품을 미뤘다고 말했다.

대당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EUV 장비는 광선을 사용하여 실리콘 웨이퍼에 디자인 기능을 생성하며 스마트폰, 전자 장치 및 AI 서버에 사용되는 고급 칩을 제조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

삼성이 몇 대의 EUV 장비를 주문했는지 또는 어떤 지불 조건을 체결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ASML과 삼성은 ASML 문제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로이터가 접촉한 모든 소식통은 언론과의 대화가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양희영, 진현주, 토비 스티어링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단독)-해리스, 45% 대 42%로 트럼프보다 근소한 우위

워싱턴, 10월16일 (로이터)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월5일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45% 대 42%로 3%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로이터/입소스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일주일 전에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두 후보의 격차는 꾸준히 유지되었지만, 일요일에 마감된 이번 여론조사는 유권자, 특히 민주당원들이 2020년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를 꺾었던 때보다 올해 선거에 더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징후를 보여줬다.

3일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 86%와 공화당 지지자 81%를 포함한 등록 유권자의 약 78%가 대선에서 투표를 할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0년 10월 23~27일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의 74%보다 증가한 수준이다. 당시에는 민주당 지지자 74%와 공화당 지지자 79%가 투표를 반드시 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약 4%포인트였다.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미국 경제를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로 꼽고 트럼프가 더 나은 경제 관리자라고 답했지만, 해리스는 의료 정책과 정치적 극단주의에 대처하는 데 더 나은 후보로 꼽는 유권자들로부터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극단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누가 더 나은지 묻는 질문에서 해리스는 43% 대 38%로 트럼프를 5%포인트 앞섰다. 의료 정책에서는 14%포인트 차이로 트럼프를 앞섰다. 두 가지 이슈 모두에서 해리스가 9월 20~23일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와 거의 변함이 없이 트럼프를 앞섰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26%가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경제, 실업 및 일자리'에 대해 누가 더 나은 후보인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는 45% 대 40%로 해리스를 앞섰다. 지난 9월 20~23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2%포인트 우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응답자 23%는 정치적 극단주의, 3%는 의료 문제를 꼽았다.

로이터/입소스 조사를 포함한 전국적인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견해에 대한 중요한 신호를 제공하지만, 선거인단의 주별 결과가 승자를 결정하며, 7개의 격전지가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와 트럼프는 이들 격전지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빙의 승부를 감안할 때, 지지자들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후보들의 노력이 승자를 결정하는 데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구조사국과 퓨 리서치 센터의 추산에 따르면 2020년 11월 선거에서 미국 성인의 3분의 2만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는 10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다.

퓨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약 3분의 1은 민주당, 3분의 1은 공화당 지지자이며, 나머지는 무소속 또는 기타 유권자이다.

유권자들은 투표에 비교적 열성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두 후보 모두 유권자 과반수의 선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유권자의 46%만이 해리스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42%는 트럼프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 938명(등록 유권자 807명 포함)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이 중 769명이 선거일에 투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중 해리스는 47% 대 44%로 트럼프보다 3% 포인트 앞섰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시장 유동성 확대 위해 RFI 경상거래, 야간 전자거래 허용해 조만간 발표..야간 국채선물 내년 상반기 목표

서울, 10월18일 (로이터) - 정부는 외환거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외국 소재 해외금융기관(RFI)의 경상거래와 야간시간 대 알고리즘 기반 전자거래(e-FX)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유창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과장은 18일 외신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현재 "RFI가 자본거래 뿐만 아니라 경상거래까지도 허용할지, 그리고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딜러 없이도 알고리즘 전자거래 요청이 있는데 이에 대해 조만간 외환건전성협의회를 개최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과장은 이러한 제도가 야간시간대 거래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선물 야간 개장 요청이 많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곽상현 기재부 국제과장은 "야간 국채선물 개장을 내년 6월을 목표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WGBI 편입에 따른 내년 국고채 만기별 배분에 대해서는 "수요에 따라 공급한다는 원칙을 이때까지 계속 유지해 왔고 내년에도 그렇게 유지할 것"이라면서 WGBI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박예나·이지훈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IMF "세계 공공 부채 100조달러 돌파..증가세 가속화될 듯"

워싱턴, 10월15일 (로이터) - 올해 전 세계 공공부채 총액이 처음으로 10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적 정서가 지출 증가를 선호하고 저성장이 차입 수요와 비용을 증폭시키면서 예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5일 밝혔다.

IMF의 최신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공공 부채는 2024년 말까지 세계 GDP의 93%에 달하고 2030년에는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중 최고치였던 99%를 넘어서는 것이

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전인 2019년보다 10%포인트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IMF와 세계은행이 워싱턴에서 연례 회의를 개최하기 일주일 전에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지출 증가를 포함해 향후 부채 수준이 현재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조세에 대한 정치적 레드라인이 더욱 확고해졌다"며 "녹색 전환, 인구 고령화, 안보 문제, 장기적인 개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 대선 캠프 지출 약속

부채 수준 증가에 대한 IMF의 우려는 미국 대선 두 후보가 연방 적자에 수조 달러를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세금 감면과 지출을 약속한 가운데 나왔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감세 계획은 10년간 약 7조5000억 달러의 새로운 부채를 추가할 것이며, 이는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계획에서 나온 3조5000억 달러의 두 배 이상이라고 예산 싱크 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가 추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 예측은 실제 결과를 상당한 폭으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5년 후 GDP 대비 실제 부채 비율은 당초 예측보다 평균적으로 10% 더 높았다.

또한 미국과 중국과 같이 구조적으로 중요한 경제의 성장 부진, 자금 조달 여건 악화, 재정 및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부채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이러한 요인이 포함된 '심각하게 불리한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시나리오에서는 전 세계 공공 부채가 불과 3년 만에 현재 예상보다 20%포인트 높은 115%에 달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 지출 브레이크

IMF는 견고한 성장과 낮은 실업률의 현재 환경이 재정 건전화에 위한 적절한 시기라고 말하며 재정 건전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29년까지 6년 동안 GDP의 평균 1%에 해당하는 현재의 노력만으로는 부채를 줄이거나 안정화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누적 3.8%의 긴축이 필요하지만, 미국, 중국 및 GDP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다른 국가에서는 훨씬 더 큰 재정 긴축이 필요할 것이다.

IMF는 미국과 브라질,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부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국가들이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IMF의 재정 업무 부국장인 에라 다블라-노리스는 "조정을 연기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과거 경험에 따르면 높은 부채와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의 부족은 부정적인 시장 반응을 유발하고 국가가 미래의 충격에 대처할 여지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 투자나 사회 지출 삭감이 연료와 같이 목표가 불분명한 보조금보다 성장에 훨씬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국가는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반면, 다른 국가는 자본 이득과 소득에 더 효과적으로 과세함으로써 세금 시스템을 더 진보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